

그라데이션에 풀어낸 음악

# 비트메이커 SOWALL

2017년, [FAVORITE] EP를 발표한 SOWALL(소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세 장의 재즈 앨범을 발표한 드러머 이소월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 모든 앨범들을 같은 맥락에서 읽어내기는 어렵다. 비트메이커로 자신을 부르는 단어를 바꾼 뒤 그는 전자음악의 형태에 가까운 싱글을 연속으로 발표했다. 곡이 하나씩 세상에 나올 때마다 그를 향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재즈 드러머였던 그가 비트메이커로 나선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이소월이 온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늘은 드러머 이소월이 아닌, SOWALL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P [FAVORITE]는 SOWALL로 활동명을 바꾼 뒤 발매한 첫 정규 작이에요.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제 음악을 들으시는 소수의 분들은 항상 좋아해 주시죠. 그분들 때문에 음악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음악을 좋아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앨범이 예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죠. 제가 노래한 곡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사랑이 뭔지 정말 생각해’를 직접 부르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앨범에 피처링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실은, 말씀하신 그 곡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 곡 정도는 내가 직접 부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랩을 제외하고 모든 걸 제가 다 쓰기 때문에 항상 다른 분들께 보내줄 때 이미 제가 그 곡을 다 불러서 레퍼런스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곡은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만든 곡이니까 내가 불러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EP 아트웍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에 담긴 의미가 있으신지.**

제 EP 아트웍에 관해서요? 다른 장르는 모르겠지만 재즈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연주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 색이 화려하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머리 색을 바꿔보고 싶다고는 30대 이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음악 장르도 바꾸고 비트메이커/프로듀서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해보고 싶은 걸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 색부터 바꿨어요. 처음 파란색으로 바꾸고 나서 중간에 보라색으로 다시 바꿨는데,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이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에 처음 있는 변화였어요. 전에는 자르기만 했지 저는 미용실에 머리를 해보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EP를 만들면서도 저는 수록곡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곡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장르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더러고요. 오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변화하면서, 혹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만든 곡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어떤 것들은 좀 강하고 어떤 것들은 좀 서사적이고 다른 것들은 힘이 빠지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의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머리 색도 그라데이션으로 빠졌어요. 신기하게 하루하루 다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해서 머리 색에서 착안했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부터 색이 빠지는 것처럼, 내가 계속 음악 하면서 바뀌어왔던 것을 표현해보고자 디자이너랑 이야기를 해서 정했죠.

**싱글의 아트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오잖아요. 그때 머리 색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싱글 아트웍에 본인 모습을 담은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중심이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싱글을 보시면 인스트루멘탈(연주곡)이 제일 첫 곡이잖아요(디지털로 공개된 3개의 싱글에는 인스트루멘탈이 1번 트랙으로, 객원 보컬리스트가 참여한 곡이 2번 트랙으로 수록됐다/ 편집자 주). 그런 것처럼 비트나 노래나 저한테는 크게 다른 게 없고 인스트루멘탈이 저한테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드러머였기 때문에 제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처음 시작을 한 거지만 내가 한 번 서두로 용기 있게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죠.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동시에 발표하고 나면 일종의 명함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할 걸 아는데, 음악가로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기존의 싱글로 발표하셨던 곡들에는 모두 보컬이 실렸어요.**

사실은 인스트루멘탈 버전 하나, 보컬 버전 하나로 해서 2CD로 내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노래가 들어간 버전을 더 많이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



“ 사실 작품을 내고 활동을 안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EP는 제 개인의 만족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 내가 죽어도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어, 스스로 내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게 하는 게 이야기를 더 다채롭게 들려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곡이 ‘PANIC DISORDER’잖아요. 관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앨범의 끝 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곡이잖아요.

그때의 짧은 시점에서 제가 혼란을 겪었던 일 때문에 쓴 거지만,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음악을 만들 때나 평소에는 그런 상태라서 그 곡을 끝 곡으로 했어요. 측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했었죠. 난 계속 그런 상태임을 알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나왔을 때 아쉬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되게 장황하게 들었을 텐데, 마지막이 생각보다 더 장황한 곡이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이 들게끔 무게감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벼운 곡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가법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월간 <재즈피플> 라이징스타로 뽑힌 게 5년 전인데요.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재즈 연주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가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요. 재즈 씬 자체가 연주를 하는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자음악을 하면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2013년에 활동할 때에는 당시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컴퓨터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새 재즈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많이 받아들이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재즈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지거나 도움 될 때가 많아서요. 모든 것을 재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즈 뮤지션의 시각 자체가 되게 달라졌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재즈 외의 다른 음악들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양하게 하고 싶어해요. 컴퓨터도 다들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핑거 드림링(손가락으로 드럼 패드를 연주하는 것)을 하면서 특강 같은 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섭외해주신 분들이 재즈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어

요. 제가 재즈 뮤지션이기도 하니 섭외한 것도 있지만, 재즈 뮤지션이든 아니든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기본이라도 알아둬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어요. 서울예대든, 동덕여대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제 동영상을 보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라이브를 하실 때 드러머로 하실 때와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실 때,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는 점이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드러머가 공연을 못한다고 해서 그 공연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옛날보다 지금은 그렇게 되었을 때 공연을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성한 일이기도 했지만, 제 것을 할 때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와 같이 연주를 하더라도, 녹음한 멤버가 빠졌을 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대체해도 앨범을 같이 녹음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때 느꼈던 교감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퍼펙트하게 다 해냈어’라는 것에 대한 존경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되게 재미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다면 존경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내 곡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들을 받아 들였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밴드라고 하는 건 같이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어떤 장르든 간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즈에서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밴드 리더가 나머지 멤버를 먹여 살려줄 수도, 그들이 내 일만 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그들의 재능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혼자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성격의 문제인데, 혼자 했을 때 훨씬 편하고 재밌어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편한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아요.

작곡은 예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험들이 지금 환경 등 많은 것들이 바뀌고 곡을 쓰는데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그때는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덜 이론적으로 접근해요. 오히려 비트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재즈 뮤지션이다보니 화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악기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부딪치느냐 이런 것들에 온통 집중을 한 후에 그 위에 드럼을 치는 격이었다면, 지금은 비트를 만든 다음에 코드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메이커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비트를 먼저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정규 앨범을 내셨던 작품들도 자신은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EP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 EP인 이 유가 있네요.

정규 3집까지 냈지만 비트메이커로는 처음 시작한 거니까,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앨범으로 내기에는 곡 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나 자신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활동을 잘 모르시고 과거 활동만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이번 앨범을 소개해주세요.

재즈 뮤지션으로 시작해서 비트메이커가 되기까지 저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소리, 좋아하는 사운드 같은 게 다 담겨있어요. EP를 내고 특별히 활동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작품을 내고 활동을 안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EP는 제 개인의 만족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 내가 죽어도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어, 스스로 내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꼭 들어보세요. 다른 앨범은 안 들어도 이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 대한 모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JAZZ**

박준우 음악평론가 프리랜서로서 <힙합엘이>라는 온라인 매거진을 운영하고 여러 매체에서 글을 쓰고 있다.

